

노 前대통령 '100재' 거행

서거 100일 봉화산 정토원서 봉행



김해 봉화산 정토원에서 봉행된 故노무현 前 대통령 100재 봉행.

故 노무현 前 대통령의 '100재'가 서거 100일째인 8월 30일 봉화산 정토원(원장 선진규)에서 봉행됐다.

김해 사원연합회(회장 지현)와 정토원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남인 노건호 씨가 유족 대표로 참석하고, 한병숙, 이해찬 전 국무총리, 문재인, 이병관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명계남 전 노사모 대표, 정세균 민주당 대표, 서갑원 국회의원, 안희정 최고위원 및 신도와 일반시민 1000여 명이 넘는 추모객이 참가해 함께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100재는 부처님의 3가지 몸을 청해 소원을 비는 영신각배, 법문, 추모사, 추모의 노래, 영혼들에게 공양을 청하는 영반, 독경과 염불로 고인의 극락왕생을 빌고 유혼을 되새기는 회향 의식 등의 순으로 여법하게 진행됐다.

선진규 정토원장은 "노 전 대통령의 유혼과 업적을 새롭게 되새기고, 고인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면서 더불어 대한민국 건국 이래 나라를 위해 희생한 많은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100재를 거행했다"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불화 그리면 마음공부 돼요"

창원 성주사, 9월부터 '제1기 불화그리기' 개설

요즘 집에 가면 다양한 불교문화강좌가 개설돼 있어 불자들의 신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 사찰요리, 차 만들기, 행선, 선사화, 전통등 만들기 등 한 두 번만 따라 가면 금방 익숙해지는 쉽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들로 저마다 부처님오신날이나 축제날이면 제법 그럴싸한 작품을 내놓는다. 그렇다던 법당 안 부처님 뒤에 모셔진 아름다운 탱화도 배우면 곧잘 그려볼 수 있을까? 그 해답은 창원 성주사(주지 원정)에서 9월 10일부터 1년간 개설되는 '제1기 불화그리기' 강좌에서 찾을 수 있다.

이번 강좌는 인사료에서 오는 9월 10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12시까지 2시간씩 1년에 걸쳐 진행된다. 성주사는 물론 부산경남지역에서 만나기 힘든 이번 불화그리기 강좌는 성주사 신도이기도한 정임순(45, 보현선) 화가가 강사로 나선다. 목소리가 아름다운 이는 찬불가를 부르고, 글씨를 잘 쓰는 이는 사경을 하고, 그림을 잘 그리면 불화를 그리



창원 성주사에서 불화그리기 강좌를 강의하는 정임순 화가.

며 수행을 하면 된다. 수행도 취미와 적성에 맞는 것을 고르면 되니 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이번 강좌는 초뜨기(원본의 스케치를 종이 위에 옮겨줌)부터 등긋기(손가락을 대어 종이 위에 옮김), 배접(실제 그림이 그려질 천으로 초를 옮겨줌), 채색 까지 전 과정을 직접 할 수 있도록 총 4가지 작품을 통해 배우게 된다. 동양화나 서양화를 잘 그리는 사람도 불화그리기 수업에 오면 그림은 '왕초보'인 일반인과 똑같은 초발심자가 된다. 정임순 강사는 "불화를 그리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멋있게 그리느냐가 아니라 불심을 갖고 정성들여 그리는 가에 있다"며 "불교의 교리와 부처님의 법문, 설화 등을 책으로 읽을 수도 있지만 탱화를 그리는데 과정을 통해 자연스레 배우게 된다"고 설명했다.

불화는 부처님 및 종교적 대상이 담긴 성스러운 그림이기에 깊은 불심과 경건한 마음가짐을 갖고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통해 산란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스스로의 마음수행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림 속에 담긴 교리와 유래, 설화 등을 공부할 수 있다.

강사 정임순 화가는 "그림실력은 형편없고, 불교교리에 대해 잘 모르는 초심자분들도 마음속에 부처님 이 계시고, 또 진실한 불심만 갖고 있다면 누구나 그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비뚤비뚤 서툴겠지만 1년 후에는 전문화가 못지않은 불화를 그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055)264-0108

박지원 기자

사찰음식 이제는 '브랜드화' 할 때

우리지역 부부니존자

사찰음식연구회장 홍승 스님

우리나라에서 '사찰음식' 하면 떠오르는 스님은 서너 분이 계신다. 그런데 '불과 2년 전만 해도 사찰음식에 관해 무지하던 부산에서 사찰음식을 포교의 방편으로 대중화하는데 앞장 선 스님은?'이란 전제를 덧붙이면, 단연코 홍승 스님(사진, 오직 한 분이다). 홍승 스님은 출가 전부터 요리 솜씨가 남달랐다. 행자 시절 어느 절에서 맛본 표고버섯밥의 맛에 감탄해 '절밥이 맛있다'는 말을 떠올리며 무릎을 쳤다. 하지만 요즘 출가한 스님들은 우유를 먹고 자란 세대라 입맛이 예전과 많이 달라 자연히 연구를 하게 됐다.



계기를 마련하는 것 △사찰음식 중 구매 의사가 높은 식품을 조사하고 상품화하는 방안을 계속 해서 연구해나갈 것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스님은 "사찰음식은 단지 채식이 아니라 마음을 맑게 해주는 음식이란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문화적인 가치와 우수한 전통 사찰음식을 대중화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전통 사찰음식을 브랜드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스님들의 입맛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속가에서 먹던 피자 맛을 살린 야채피자, 땅속육 같은 것을 좋아하니까, 스님들이 먹기 적당한 조리법을 점점 개발하게 됐죠. 하지만 대중들의 변화된 입맛을 외면하고 전통재료를 고집한다면 사찰음식은 잊혀져버리고 맙니다."

이와 반대로 대중의 식탁은 서구화되고 인스턴트식품이 넘쳐나며, 육류 및 지방의 과잉섭취로 성인병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 탓에 사람들의 관심은 건강식 중에서도 채식과 그 대표적인 음식으로 알려진 사찰음식을 찾으며 '웰빙'을 외쳤다. 그래서 홍승 스님은 더욱 바빠졌다.

그런데 최근 사찰음식의 대중화를 통해 일반인에게 널리 보급하면 독자적 특성으로 국내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홍승 스님은 '불교문화콘텐츠연구원' 설립추진을 위한 기념학술 발표회를 통해 사찰음식의 대중

화를 위한 방안으로 △전통 사찰음식 조리 전수자를 보호, 육성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일반 대중이 사찰음식을 접하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해 자연스레 불교문화와 전통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연구를 하게 됐다. "스님들의 입맛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속가에서 먹던 피자 맛을 살린 야채피자, 땅속육 같은 것을 좋아하니까, 스님들이 먹기 적당한 조리법을 점점 개발하게 됐죠. 하지만 대중들의 변화된 입맛을 외면하고 전통재료를 고집한다면 사찰음식은 잊혀져버리고 맙니다."

이와 반대로 대중의 식탁은 서구화되고 인스턴트식품이 넘쳐나며, 육류 및 지방의 과잉섭취로 성인병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 탓에 사람들의 관심은 건강식 중에서도 채식과 그 대표적인 음식으로 알려진 사찰음식을 찾으며 '웰빙'을 외쳤다. 그래서 홍승 스님은 더욱 바빠졌다.

그런데 최근 사찰음식의 대중화를 통해 일반인에게 널리 보급하면 독자적 특성으로 국내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홍승 스님은 '불교문화콘텐츠연구원' 설립추진을 위한 기념학술 발표회를 통해 사찰음식의 대중화를 위한 방안으로 △전통 사찰음식 조리 전수자를 보호, 육성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일반 대중이 사찰음식을 접하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해 자연스레 불교문화와 전통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연구를 하게 됐다. "스님들의 입맛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속가에서 먹던 피자 맛을 살린 야채피자, 땅속육 같은 것을 좋아하니까, 스님들이 먹기 적당한 조리법을 점점 개발하게 됐죠. 하지만 대중들의 변화된 입맛을 외면하고 전통재료를 고집한다면 사찰음식은 잊혀져버리고 맙니다."

박지원 기자

사명 대사 동상 성역화 본격화

18일 동상 주변 현장공사 첫 삽

임진왜란 때 승병을 일으켜 나라를 구한 사명 대사를 기리는 동상 주변 성역화사업이 9월 18일 본격화된다.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회장 정예)는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어린이대공원 안에 건립된 사명대사 동상 주변을 성역화하는 현장공사가 18일 첫 삽을 뜬다. 연합회는 부산시로부터 8월 17일 공원지형 고시 완료, 8월 24일 시공사와 공사 계약, 9월 15일 실시계획인가를 확정 받으면, 18일 현장공사를 개시해 오는 2010년 2월 중 완공을 목표로 한다. 이번 사명 대사 동상 주변 성역화사업은 1500여명 동시 수용이 가능한 '사명 대사 추모광장'을 조성하고, 동상 하부에 사무실 및 기

념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게 된다. 부산시는 이번 사업에 8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나 턱없이 모자라 추경예산 5억원을 추가로 편성해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추경예산은 2010년 서둘러 집행해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적극 후원할 것을 약속했다.

사명 대사는 임진왜란 때 의승병 대장(儀僧兵大將)으로 평양성 탈환과 서울 수복에 결정적 공을 세웠고, 전후에는 부산 범어사와 백양사를 거쳐 일본으로 건너가 국교를 회복한 후 강제 징용된 동포 3500여명과 함께 귀국했다.

박지원 기자

'거창' 복지·홍보에 박차

연수구의회, 거창군 삶의쉼터 방문



거창군삶의쉼터 관장 선용 스님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방문단을 맞아 인사하고 있다.

개관 1주년을 맞은 거창군삶의쉼터(관장 선용)의 거창군의 복지시설 및 지역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8월 26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장 권희의(의장 관종배)는 거창군삶의쉼터를 방문해 거창의 우수한 복지시설과 현황을 답사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선용 스님은 "이번 견학을 통해 다른 도시와 비교해 결코 뒤떨어지

지 않은 거창의 발전된 모습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복지관은 지난 2월에는서울 마포구의회의 견학을 맞아 복지시설 등을 홍보했다. 이번에 두번째를 맞은 지역구의회 의원 및 복지관계자의 방문 등을 통해 거창 지역민들의 복지 향상 및 거창을 홍보하는 데에 좋은 선례가 되고 있다.

박지원 기자

청소년 법회 열려

부산파라미타, 12일 법회

부산파라미타청소년법회(총재 조성, 이하 부산파라미타)는 9월 12일 오전 11시 부산불교신도회관 4층 파라미타 사무실에서 사무국분회 법회를 열고 본격적인 청소년 회원을 이끈다. 부산파라미타는 학교청소년단체 및 사찰소속 학생회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불교단체로, 그간 파라미타 소속 중학교에서 미등록,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파라미타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해 고심을 거듭해왔다. 이에 부산파라미타는 사무국에서 직접 사찰학생회와 같은 사무국분회를 신설하게 됐다. (051) 513-4306

박지원 기자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성공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많고 불경기에도 흥망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풍수학적으로 보면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다.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걸음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사업이 힘든 사업장의 비방!

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향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니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첫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첫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생활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장사 성공을 기원하는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된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보시가격:\$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미미홍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당사무소, 인경점, 산발매점, 전자제품매점, 미용실, 방앗간, 공점, 주유소, 신세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자동차용호신불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호신불규격직경3.5cm,세로4.5cm



▶자동차사고 예방 점안식과 축원불공마쳐!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 는 중생들이 사는동안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들이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꼭 맞는 법구가 반가사유상 호신불이다. 우리나라 호신불의 역사는 삼국시대 신라부터 전쟁에 나가는 장수와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이 직접 전쟁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돌아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했으며 호신불을 몸에 지니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전해진다. 한지 앞도 모르는 험한세상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인한날이 없는 오늘도 안병을 지키는 호신불인 반가사유상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운전하는 남편께, 존경하는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이

운전하는 가족친지에 사고예방의 선물 차량구입시 사고예방과 생명보호의 선물

다른 선물이 될것입니다. 신라 화랑장수와 귀족들이 호신불로 사용했던 호신불을 재현한, 반가사유상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과 백연화를 넣었다. 생명보호와 자동차 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동호신불을 자동차 운전석 위 룸미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45,000원

신청전화 : (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영험의 구슬



보궁여의주

필승합격과 승진의 영험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것이 이루어 진다는 구슬이다. 전설에 따르면 아들형제를 데리고 어렵게 살아가는 어머니가 남섬부주 바닷가에 떨어져 있는 구슬두개를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해 집에 가져왔다. 집에는 관료가 되어 어머니를 편히 모시겠다는 형제가 시험만 보면 번번이 아방을 하며 세월만 보내고 있었다. 아들에게 집에 오는길에 예쁜 구슬을 주었다고 보여주었다. 구슬을 본 형제는 참 신비한 구슬 같아요. 어머니는

시험을 보면 꼭 1~2점차로 낙방

아들 형제에게 하나씩 주었다. 그후 매년 낙방만 하던 형제가 그해 관료에 등고되어 어머니는 소원을 이루고 건강장수 하고 관료가된 형제는 큰 공덕을 쌓으며다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각종 불경 해설서를 보면 제석천왕과 아수라가 싸울때와 전륜성왕이 바위를 부술때에 남섬부주에 떨어져 변한것이라고도하고 용왕의 몸에서 나와 사람이 여의주를 집안에 두고만 있어도 목이 해칠수 없고 불속에 있어도 타지않고 권세와 명예를 얻는 공덕이 있는 구슬로 사갈라 용궁에도 있고 여의륜관 세습부처님 두손에도 들고있어 중생들이 뜻한바가 이루어지는 비방의 법구로 삼고 있다. 시험을 보고나면 꼭 1-2

점차로 낙방을 한다. 수험생들은 한두 문제로 인해 1년을 또 고통속에 시험 준비를 하고, 승진시험도 승진심사날 심사위원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느냐에 달려있다.

보궁여의주는 부처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주고 부처님 가피로 승리는 비방의 법구다. 필승합격과 필승 승진을 위한 축원불공을 마친 보궁여의주는 길상원력으로 품위있게 제작하고 수험생의 필승합격을 위해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리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준다. (신용카드분할가) 보시가격: 95,000원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